

# ‘고백부부’ 장나라·손호준 진솔함 통했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서로 죽고 못 살았던 그때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KBS 2TV 금드 드라마 ‘고백부부’가 이혼하겠다는 부부에게 법원이 명하는 이혼 숙려기간을 청춘 판타지로 요리하며 공감대를 얻고 있다.

드라마를 담은 자투리는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싶은 시간여행이지만, 제작진은 현실에 처한 30대 부부의 전쟁 같은 오늘과 대비해 뜬구름 잡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감을 다분히 장착한 판타지로 감정이입을 이끈다.

시청률은 5~6%대로, 경쟁작인 이연희-정용화 주연 JTBC 청춘드라마 ‘더 패키지’의 1~2%를 가뿐히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동안 우리 사회 이혼 건수가 증가해 문제더니, 어느 순간 증가세가 멈췄다. 부부 금실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안 해서란다. 결혼을 안 하니 이혼도 안 하는 것이다.

‘고백부부’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사랑으로 한 결혼이 정글정글한 현실의 문제로 바뀐 모습을 아프게 꼬집는다. 대학생 때 ‘메이퀸’에 도전했던 여자는 아이 낳고 키우느라 ‘행색’이 말미 아니게 됐고, 영화감독을 꿈꾸던 남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돼 ‘고객’인 의사의 내연녀 뒤처지니까까지 하며 비굴하게 살고 있다. 같이 살 방 한 칸만 있어도 행복할 것만 같았던 핑크빛 사랑은 돈에 치인 현실 앞에서 종적을 감춘 지 오래고, 여우를 상심한 ‘피로 사회’에서 부부 간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십상이다.

## 이혼 숙려기간 중 연애시절로 돌아간다?

### 현실감 장착한 청춘 판타지로 잘 풀어내

### 시청자들 공감대 얻어 화제성 1위 올라

‘고백부부’는 1999년 대학 신입생 때부터 사랑을 키워 결혼한 주인공 마진주-최반도가 18년 뒤인 2017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날 아침, 뜻밖에도 1999년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 이야기를 그린다. 2017년 현재의 정신과 마음, 경험을 탑재한 채 1999년으로 돌아간 둘은 다시 찾은 젊음을 만끽하다가도 이미 경험하고 온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남남으로 갈라서기로 한 마진주와 최반도는 ‘재회’한 1999년에서 남남인 척하며 각자의 ‘두번째 청춘’을 누린다. 하지만 미래에는 안 계산 ‘1999년의 엄마(장모님)’와 ‘2017년에 놓고 온 어린 아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은 둘을 남남일 수 없게 만든다. 인륜, 천륜으로 엮여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둘의 역사는 갈로 베풀 줄라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고백부부’가 걱정 없고 마냥 행복했던 추억의 복고 시간여행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시청자가 주인공과 함께 잠시라도 오늘을 돌아보게 만든다. 갈 데까지 간 격양된 감정으로 이혼 도장을 찍은 마진주와 최반도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이혼 숙려기간’을 갖는 상황이 이 드라마의 판타지를 살갑게 한다.

◇장나라, 상큼함과 신파 동시에 책임지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대대적으로 훑고 지나간 이후, 대학 캠퍼스 시간여행은 어떤 종류든 ‘아류’의 골레를 벗어날 수 없다. ‘고백부부’의 1~2회도 그러했다. 1999년 대학 캠퍼스로 돌아간 무대는 새로울 게 없었다.

하지만 주인공들의 호연이 식상한 이야기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장나라는 청초하고 발랄한 여대생의 모습을 보여주며 화면을 화사하게 만드는 동시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절절한 마음으로 눈물샘이 터져버린 30대 주부의 심파를 능수능란하게 실어나르고 있다.

특히 커다랗고 맑은 두 눈에서 닭동 같은 눈물을 흐르르 흘리는 장나라의 모습은 완벽한 신파지만, 시청자의 콧등을 시큰하게 자극한다. ‘코믹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자꾸 난다’는 시청 댓글이 이어진다. 미래에서는 이미 세상을 뜬 엄마와 재회하자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 나 낳느라 고생했어”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나라의 모습, 대학 캠퍼스를 누비다가도 미래에 두고 온 어린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장나라의 모습은 보는 이를 무장해제시킨다.

‘응답하라 1994’로 스타덤에 오른 손호준도 ‘아류작’ 출연으로 인한 약점을 극복하고 극을 잘 받쳐주고 있다. 철부지 대학생이 아니라, 이꼴지꼴 다 경험한 생계형 가정의 내면을 탑재한 채 다시 대학 신입생으로 돌아간 최반도에게 1999년의 대학생들은 “짠한 어린 것들”이다. 최반도는 그러한 감정 경험을 통해 ‘어른’으로서 알게 모르게 다시 성장하는데, 손호준이 이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고 있다.

#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 착각”

## 영화 ‘미옥’ 나현정 역 김혜수



“착각이죠, 착각.”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혜수는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같은 수식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는 “의지는 떨어지지만 체력으로 버틴다”며 “중개 얘기해서 카리스마지, 가만히 앉아서 카리스마 내뿜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했다.

그러나 8일 개봉하는 영화 ‘미옥’은 30년 넘는 연기 인생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축된 그의 카리스마에 빛지고 있다. 김혜수는 범죄조직의 2인자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하는 나현정 역을 맡았다.

‘미옥’은 보기 드물게 여배우를 원톱으로 내세운 누아르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김혜수는 ‘차이타운’(2014)에서 보여준 범죄조직 ‘대모’의 카리스마에 액션을 보냈다. 10kg 가까운 무게의 장총을 겨누고, 대형버스를 몰며, 전기드릴과 단도를 휘두른다. 본격 액션 연기는 처음이었다.

“원래 액션 싫어하거든요. 다칠까 봐. 처음인데 다치면 연기할 때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걸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너무 몸에 힘을 주다 보니 다음날 근육통이 심하게 왔어요. 버스 액션 장면 찍을 때는 물리치료하시는 분이 현장에 오셨어요. 아픈 몸 이끌고 하다 보면 몸이 풀리고 그랬죠. 나중에는 적응해서 막 날아갈 것 같고, 춤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최근 국내외 영화계는 각종 성추문으로 몸살 중이다. 그는 “과도기이지만,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비난하고 분노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광주교통방송, 개국 20주년 ‘교통문화 대축전’

### 오늘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남진·김혜연 등 공연

TBN 광주교통방송(본부장 안태욱)은 8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2017 교통문화 대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국 20주년을 맞이해 교통유공자 및 봉사자를 시상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통통신원 및 교통가족을 비롯해 광주·전남 주요기관장, 지역민 등 800여 명을 초청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는 ‘교통안전 봉사대상 시상’, LED 빛 퍼포먼스를 펼치는 ‘어르신 교통사고 재로와 선포식’이 열린다. 이어 남진, 김혜연, 조항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40분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17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이 펼쳐진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녹색어머니회 등 100여 명이 ‘안보운전’, ‘어르신이 안전한 나라’를 슬로건을 내세우며 거리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체험 존’, 교통가족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체험 존’, 특수 VR 교육을 적용하고 음주 상황을 체험하는 ‘음주 가상 체험 존’ 등이 마련된다.

##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트림프 대통령 국회 연설	50 VJ 특강대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뉴스 40 KBC 생활뉴스
11	35 나눔의 행복, 기부 50 UHD 한식	55 매드독(재)		00 미트림프 대통령 방한 국회 연설 35 생활의 달인 스페셜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2017 지구촌 어린이 돕기 희망 더하기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총조립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월요기획 (인상, 세계를 매혹시키다)(재)		10 밤상 차리는 남자(재)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정공부책상 위키 2	3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0 콘서트 7080(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5 국제상 수상작 베스트 미래인간 AI(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MBC 파워매거진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첩리고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해피타임 명작극장 스페셜 (이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UHD 한식	5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 365 0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총조립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매드독(재)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KBS 파노라마-히말라야인			
10	30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병원선 돌아보기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0 문화의 향기 50 동행 (재)	10 고백부부	10 라디오스타 스페셜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40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신상극지 3부 간용, 조조의 재발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똑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땀땀 땀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8:45 한글이 아호2 09:00 레이디디고 09:30 플랑	09:40 글로벌 앵버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모시조개찜과 마부추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 (인공지능과 미래 의학)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사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한글이 아호 2(재) 16:45 땀땀 땀 유치원 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일출 농부의 숲 역의 가을)	20:50 세계테마기행 (살을 노래하라 인도네시아 3부 풍요로의 초대) 21:30 한국기행 (가을엔 노래기행 3부 방랑자) 21:50 EBS 다큐프라임 (900개의 영혼, 파푸아뉴기니 영혼의 땅, 윌헬름)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내겐 너무 소중한 당신 고물 할배의 보물)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9월 20일 己亥)	
子	48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60년생 의도하여 왔던 바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커진다. 72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84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기 기대해 볼만하다. 행운의 숫자 : 13, 24	午	42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은 당상이요다. 54년생 학수고대해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66년생 본인의 생활에 충실 하는 것이 이익이다. 78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자. 90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보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59, 82
丑	49년생 인연은 새로운 기대할 배는 못 된다. 61년생 분수와 적에 맞아야 손조를 것이다. 73년생 조상의 음식으로 자신이 잘 되는 보은을 입을 것이다. 85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 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3, 36	未	43년생 사소한 것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55년생 오해의 소지가 없다. 67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79년생 주도면밀한 인식이 명쾌한 판단으로 이끌 것이다. 91년생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행운의 숫자 : 66, 33
寅	50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62년생 부화뇌동하다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74년생 상대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라. 86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8, 14	申	44년생 여러 가지들 전문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56년생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68년생 나에게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80년생 실용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7, 53
卯	51년생 근분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63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응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75년생 술에 놓여 팔리도록 의해야 먹는 법이다. 87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행운의 숫자 : 37, 88	酉	45년생 자신이 생각하여 왔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57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혼연에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자. 81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55, 20
辰	52년생 돌발 사태에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64년생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76년생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형세를 타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88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행운의 숫자 : 82, 28	戌	46년생 돌아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58년생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70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82년생 꼼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65, 69
巳	53년생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정리된다. 65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77년생 뒷물이 많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89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7, 41	亥	47년생 여러이 모여서 때를착한 마당을 이루는 도량이라고 본다. 59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할 일을 절대로 미루지 마라. 71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83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8, 55